

## 봄철 자동차관리

# 겨울철 혹사당한 차를 감사주자

햇살이 차츰 따사로우지면 겨울 내내 소홀히 했던 자동차 점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겨울철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점검에 게으른 경향이 있다.

겨울철 차량관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봄철관리는 상처입은 부위를 어루만져 주는 개념이다.

추운날씨로 인해 오일류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차체에 달라붙어 차의 부식을 급진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이 지난 따뜻한 봄날 대청소를 하는 기분으로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하자.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경우 잘 관리한 차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철저한 관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몫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편집자 주〉



### ※ 차 안팎 청소

겨우내 히터 바람과 담배연기로 찌들어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벗겨내야 산뜻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도어와 트렁크를 활짝 열고 먼지와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또한 곰팡이가 끼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곰팡이 제거제 등을 사용해 깨끗이 청소한다.

세차할 때는 가급적 차량 밑 부분까지 씻어주는 것이 좋다.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붙어 있으면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엔진 룸 청소는 우

선 엔진 본체와 실린더 헤드 커버 등에 끼어 있기 쉬운 기름먼지를 닦아낸다.

다음으로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이나 냉각수 등이 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새는 곳을 발견하면 가까운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배터리와 오일류 점검

#### ▶ 배터리 점검

겨울철 많이 사용했던 배터리나 오일류의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배터리 본체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주고 배터리 단자는 사용하지 않는 칫솔이나 쇠 브러쉬로 이물질질을 깨끗이 털어낸 후 단단히 조여준다. 또한 배터리 단자 상단부에 그리스를 얇게 도포하면 이물질 생성을 억제해 단자 접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배터리 액은 부족하면 증류수를 보충해 준다.

▶ 엔진오일 점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잦은 시동으로 엔진오일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진오일 양과 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시 새 오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엔진오일이 사계절용이라면 괜찮지만 아직도 겨울용 엔진오일을 쓰고 있다면 계절에 맞는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교환방법은 남아있는 오일을 모두 배출시킨 후 상부오일 주입구 캡을 열고 주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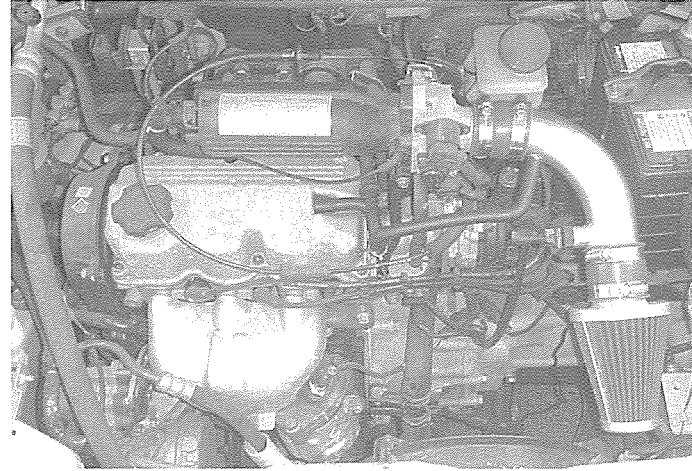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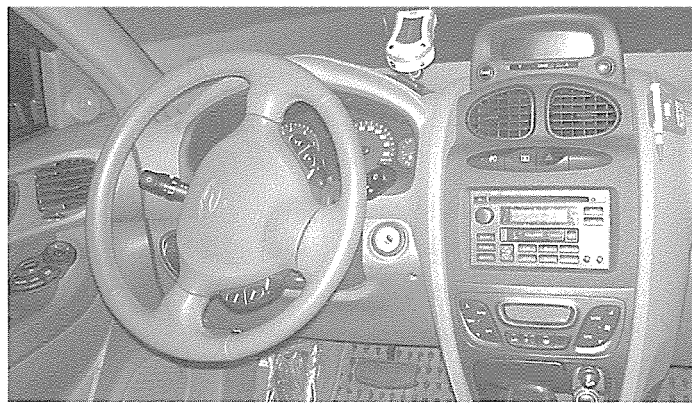
- 주의사항 -

오일색이 심하게 변색되었으면 교환하도록 한다. 겨울 동안 오일의 소비량이 표준 소비량의 50% 이상이 되면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도록 한다. 엔진오일과 기어오일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지정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어컨 점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20분 정도 에어컨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냉방성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에어컨 가스가 누출됐는지 여부와 에어컨 벨트가 손상되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가까운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 작동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 유입통로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것이므로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 청소를 해야 한다.

◆냉각계통

냉각계통에 생기는 치명적인 고장은 주로 누수이다. 작은 누수로 엔진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 밑 바닥에 냉각수가 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냉각수가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으로 끝인데 냉각수는 4만km 정도마다 냉각수를 완전히 빼내고 냉각계통을 세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라디에이터 코어 부분의 손상을 살펴보고 고온으로 인해 고무호스 등에 균열이 생겼는지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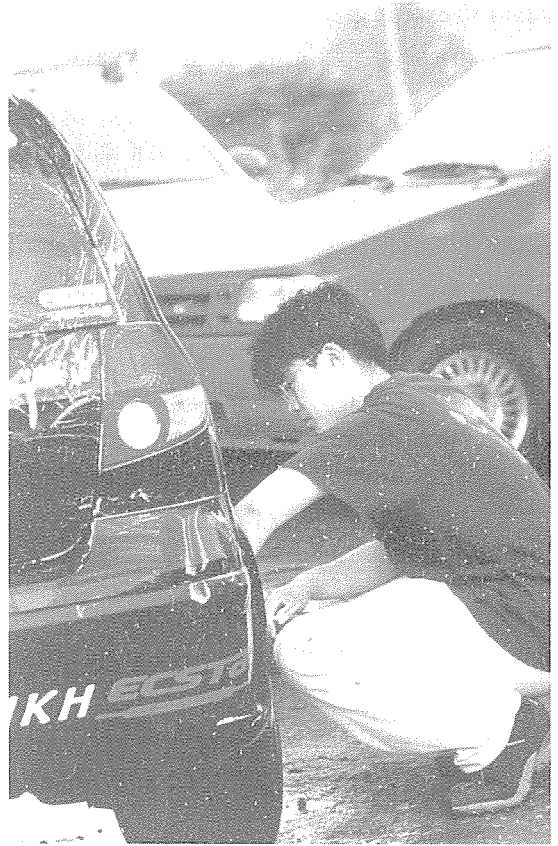
또 팬 벨트의 장력과 벨트의 균열을 살펴봐야 한다.

### - 냉각수 교환요령 -

라디에이터(냉각기)와 실린더 블록의 드레인플러를 열어, 냉각수를 완전히 빼낸다. 깨끗한 물을 라디에이터 입구에 넣어 드레인 플러그에서 깨끗한 냉각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세척한다. 냉각수를 기존 용량의 80%정도 수온 조절기가 작동될 때까지 워밍업 시킨다. 규정용량으로 냉각수를 보충한다.

### ◆브레이크 계통

우선적으로 브레이크 액을 점검하는데 리저브 탱크의 브레이크 액이 하한선보다 부족하면 보충해 준다. 브레이크 액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기포가 발생하는 베이퍼 록 현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 브레이크 반응이 늦을 수 있으므로 2~3년 정도에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 ◆타이어 점검

겨울철에 스노 타이어를 장착했던 경우는 일반 타이어로 교환해 준다. 또한 겨울철에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를 조금씩 빼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봄이 되

면 노면이 정상적으로 되면 공기압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했던 체인은 녹 등을 벗겨내고 경유 등으로 닦아 잘 보관한다.

타이어는 3~4주마다 공기압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정확한 계이지를 사용해 차량 매뉴얼

에 있는 권장 공기압을 주입한다.

타이어는 찬 기온에서 공기가 잘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페어 타이어는 긴급 상황을 위해 있는 것이다. 손상된 스페어 타이어는 즉시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 혹은 교환해야 한다.

### ◆차체 광택 관리

환절기의 심한 온돈차는 자동차의 도장에도 심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손상을 방지하면서 자동차의 멋을 내기 위해 코팅, 광택을 한다. 코팅, 광택은 차체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장 손상 및 퇴색을 막아주므로 산화방지제 성분이 함유된 것이 좋다. 차를 깨끗이 세차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음 코팅하고 광택을 낸다.

